

# 문화유산 보존원칙 수립을 위한 가치의 정의 및 방법론에 대한 시론적 연구

이수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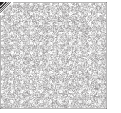
국립문화재연구소

투고일자 : 2011. 09. 30 · 심사일자 : 2011. 10. 29 · 게재확정일자 : 2011. 11. 10

## 국문초록

문화유산의 보존을 사회적 행위로서 이해하고, 보존의 원칙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문화유산이 지닌 가치와 이에 대한 평가이다. 문화유산을 보존하는 이유이자 대상이며 방법을 논하는 핵심요소가 바로 문화유산의 가치인 것이다. 때문에 최근 20년 동안 국외에서는 가치에 대한 연구가 다면적으로 깊이 있게 진행되어 왔지만 국내에서는 가치에 대한 연구가 거의 전무한 상태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국외에서 진행된 연구내용과 동향을 분석하고, 한국 문화유산이 지니고 있는 가치의 다양한 측면을 개별적으로 정의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가치측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살펴 본 후에 가치에 중점을 둔 보존원칙의 수립을 위한 방법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서구 유럽에서 19세기에 주관적 입장에서 특정 양식을 선호하고, 예술적 가치를 다른 가치보다 중시하는 가치평가 방식이 19세기 후반과 20세기를 거치면서 어떻게 발전하여왔는지를 살펴봄으로서 가치에 대한 태도가 문화유산의 다양한 가치를 동등한 관점에서 균형 있게 평가하는 방향으로 발전하여 왔음을 고찰하였다. 그러나 다양한 가치를 최대한 동등한 관점에서 존중 하는 데 있어서 가치들 간에 서로 상충할 수 있는 속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들 속성간에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합리적인 판단과 방법론이 제시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특히 가치의 평가는 문화유산의 진정성에 대한 판단과 시대적·사회적 요소들에 의해서 언제든지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가치를 평가하는 데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에 대해 늘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영국의 보존 정책을 사례로 들어, 어떻게 가치를 평가하고, 가치의 총체인 문화유산의 '중요성(significance)'을 파악하며, 문화유산의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을 점검하고, 가치를 최대한 보존할 수 있는 원칙을 수립하는지에 대한 예시를 제시하면서 국내에서도 가치에 중점을 둔 보존단계 및 원칙의 수립을 위한 시론적인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 문화유산 보존에 있어서 '가치'의 중요성

과거로부터 전해온 문화유산의 가치를 이해하고, 보존하며, 활용하고, 후대에 전해주는 일련의 행위에 있어서 문화유산이 지니고 있는 '가치'는 문화유산을 위한 다양한 사회적 행위를 하고 있는 이유이며, 목적이기도 하다. 때문에 최근 20여 년 동안 문화유산의 보존원칙 분야에서 가장 활발하고 다각적인 관점에서 논의해 온 화두가 바로 '문화유산이 지니고 있는 다양한 가치들을 어떻게 정의하고 평가하는가'이다. 그리고 평가된 다양한 가치들을 바탕으로 어떻게 보존원칙을 수립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또한 문화유산을 관리하는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에서는 이에 대한 논의내용과 연구결과를 정책에 흡수하여 가치에 바탕(value-based)을 둔 보존관리 절차와 의사결정과정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문화유산을 보존하는데 있어서 가장 근본적으로 고민해야 할 것은 문화유산을 '왜' 그리고 '어떻게' 보존해야 하는가, 그리고 '무엇을' 보존해야 하는가이다. 문화유산을 보존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수많은 문화유산 중에서 우선적으로 보존해야 할 대상을 어떻게 선정해야 하는지, 보존해야 하는 문화유산의 물질적·정신적 측면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그리고 어떠한 목표와 방법으로 보존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들이 보존에 있어서 고민해야 할 부분이자 철학적인 근간이다.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서 정해진 잣대를 가지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정답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해당 문화유산이 지니고 있는 다양한 가치를 이해하고, 이들의 보존 상태와 처한 환경, 그리고 해당 문화유산을 활용하고 보존하는 사람들이 속한 사회적·문화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논리적인 절차를 거쳐, 문화유산의 가치가 최대한 보존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고 해야 할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보존에 대한 방향과 결정이 시대적·문화적으로 다를 수 있고, 그러한 결정은 전문가뿐만 아니라 사회의 구성원들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지는 '사회적 행위'가 된다. 그래서 보존을 한 개인이나 기관이 독단적으로 수행하는 단발

적 행위가 아닌 사회적 행위로 인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그 바탕에는 문화유산이 개인이 아닌 공공의 자산이며, 한 세대의 전유물이 아니고 후대에 전승해야 할 유산이라는 생각이 기본 전제로 깔려 있는 것이다.

그러한 관점에서 보존을 이해한다면 보존 원칙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문화유산의 가치에 대한 평가와 가치의 다양한 측면들을 이해하는 것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며, 필수적인 절차가 된다. 문화유산을 보존하는 이유와 대상, 그리고 방법 모두 '가치'와 깊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 작업은 바로 문화유산이 지닌 다양한 현재적 가치를 평가하고, 향후에도 발굴 될 수 있는 잠재적 가치를 예상해 보고, 다양한 가치의 각 요소와 측면들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는 것이다. 그리고 평가된 가치를 근거로 하여 개별 문화유산의 총체적 중요성을 파악하고, 이들을 둘러싼 주변의 사회적·시대적·문화적 측면들을 고려해서 다양한 가치들을 훼손하지 않고 최대한 유지시킬 수 있는 방법론을 찾아야만 비로소 보존 원칙과 방법론을 수립할 수 있다.

그러한 맥락에서 문화유산의 보존원칙을 연구하는 분야에서 최근 20여 년 동안 가치에 대한 많은 관심을 불러 일으켰고, 연구자와 문화유산을 관리하는 기관이나 단체에서 이 분야에 대한 연구와 논의를 활발하게 진행하여 왔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근대적 보존개념이 도입된 이후 지금까지 문화유산의 '가치'에 대한 연구와 논의가 거의 없었다. 이미 문화유산의 가치를 최대한 보존해야 한다는 기본원칙 자체는 여러 글에서 언급되었지만 문화유산이 지닌 다양한 가치들을 깊이 이해하고 개별적으로 서술하는 논의는 없었으며, 보존을 하는 데 있어서 나타나는 다양한 가치들 간의 상관관계와 문제점에 대해서도 논의된 바가 없다. 그러다 보니 문화유산에 대한 보존 원칙과 방향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일관성 있고, 확고한 철학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논리적인 기반이 약하다는 지적을 늘 받아왔다.

해방 이후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문화유산의 보존과학적인 측면이 강조되어 왔고, 이로 인해 많은 과학적 연구 결과들이 축적된 성과도 있었지만, 상대적으로 과학적 분야 보다 논쟁의 여지가 있는 근원적·철학적 고민은 꺼리는 경향 때문에 철학적 측면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편이다. 때문에 가치보존에 대한 중요성은 이해

하면서도 가치에 대한 정의나 평가방식, 그리고 이를 토대로 보존원칙을 수립하기 위한 방법론에 대한 연구는 이제 시작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다.

최근 문화재 보호법이 매장문화재와 수리에 관한 법률 등 3개로 분법 되어 수리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문화유산과 관련한 행위의 분야별로 관리가 좀 더 체계화 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또한 승례문 화재 사건 등 문화유산과 관련한 크고 작은 사건이나 보존·복원 결정에 대해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한국의 사회적·문화적 특성을 반영한 보존 철학의 토대 위에 우리 문화유산에 적합한 보존원칙을 수립해야 할 필요성도 자주 언급되고 있다. 그리고 문화유산의 보존과 관리에 대한 의사결정과 보존방안의 수립이 이제는 국가기관에만 의존하는 시대에서 벗어나 각종 비정부 기구나 사회단체들이 의사결정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시대로 진입한 만큼 더욱더 논리적·합리적·실용적인 보존원칙을 수립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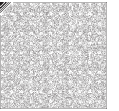
이러한 최근의 환경변화에 부합하고 가치에 대한 연구를 국내에서도 본격적으로 진척시키기 위해서 본 논문에서는 제일 먼저 문화유산이 지니고 있는 가치에 대한 가장 기초적이고 근원적인 논의들을 전개해 보고자 한다. 즉, 문화유산이 지니고 있는 다양한 가치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문화유산의 보존원칙과 방향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서로 충돌 또는 상호 보완적인지에 대한 상관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평가된 가치들이 실제 보존원칙을 수립하는 데에 있어서 어떻게 활용되고, 가치에 중점을 둔 보존원칙의 수립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론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기존에 나온 국제적인 연구동향과 논의 내용을 살펴볼 것이다. 이는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가치에 대해 축적된 연구 성과가 적기 때문에 국제적인 연구 성과를 상세히 살펴봄으로써 그 토대 위에서 우리가 가치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어서 문화유산에 담겨있는 다양한 가치를 한국 문화재에 맞게 포괄적인 입장에서 종류별로 분류하여 서술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가치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에 대해서 논하고, 마지막으로 보존원칙 수립의 방법론에 대한 국외의 사례를 통해 한국에서 실용화 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안하고자 한다.

## 문화유산의 가치에 대한 기존의 연구동향

문화유산의 가치에 대한 연구들 중에서 논의의 변화 과정을 알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글로는 미술사학자인 리글(Alois Riegl, 1858~1905)과 현존 고고학자인 라이프(William D Lipe)의 논문과 함께 미국의 게티 보존 연구소(The Getty Conservation Institute)에서 발표한 3건의 보고서를 들 수 있다 (Riegl, 1903; Lipe, 1984; Mason, 1999; Avrami et al, 2000; de la Torre, 2002). 그 외에도 베니스 현장과 같은 국제적 선언문이나 현장에서 가치에 대한 관점의 변화과정을 엿볼 수 있다.

그런데 이들 보다 앞서서 가치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가장 먼저 시작된 것은 영국의 고건물 보호 협회(Society for the Protection of Ancient Building)가 1877년 발표한 선언문(The Manifesto)에서이다. 존 러스킨(John Ruskin, 1819~1900)의 복원반대(anti-restoration)사상에 깊은 영향을 받아 윌리엄 모리스(William Morris, 1834~1896)와 필립 웹(Phillip Webb, 1831~1915) 등 협회의 창립회원들이 작성한 이 선언문에는 ‘가치’라는 용어가 등장하지는 않지만 문화유산을 보존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이유이자 대상에 대해 ‘artistic, picturesque, historical, antique, substantial’ 등의 측면을 들고 있다 (SPAB, 1877: 2). 이러한 측면들은 문화유산의 가치에 대해 현재까지도 모두 유효한 부분들이자, 그 내용에 있어서도 단순히 문화유산의 재료와 형태 등과 같은 유형적 측면만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장인기술이나 정서적 가치 등 무형적인 측면까지 포함하는 선구자 적인 생각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논의라 할 수 있다. 모리스의 무형적 측면에 대한 배려는 그가 선택한 용어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그는 서유럽에서 현재 흔히 사용하고 있는 ‘건축적(architectural)’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예술적(artistic)’이라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다. 이는 당시 그가 고건축에 대해 가지고 있던 생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로서, 건축은 바로 장인의 손길과 땀이 배어있는 예술작품이며, 훌륭한 고건축물에서 장인 기술과 예술정신이 매우 핵심적인 측면임을 암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Miele, 2005: 54).



## 1. 리글의 가치에 관한 입장(1903)

19세기 중반까지 문화유산의 양식적·형태적 측면을 중요하게 생각하여 문화유산이 제작되었던 시기의 모습 또는 이상적인 형태와 양식으로 되돌리는 보존행위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면, 19세기 후반 이후부터는 리스킨과 모리스의 복원반대운동이 지배적인 사상으로 자리잡으면서 가치를 좀 더 다각적으로 규명하고 이해하는 논의들이 등장하였다. 그 대표적인 것이 오스트리아의 미술사학자였던 리글이 쓴 논문이다. 리글은 문화유산의 가치를 세분화하여 다양한 측면에서 정의하였을 뿐 아니라, 개별적인 가치들이 서로 충돌할 수 있는 대립적인 측면이나 모순적인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화유산의 가치에 대한 논의를 크게 진전시켰다.

리글은 문화유산의 가치를 크게 기념적인 가치(commemorative value)와 현재의 가치(contemporary value)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그리고 기념적인 가치에는 연대적(age), 역사적(historical), 의도적인 기념적(deliberate commemorative) 가치 등이 있으며, 현재의 가치에는 예술적(또는 창작적, artistic), 사용적(또는 활용적, use) 가치 등이 있다고 하였다. 여기에서 일반적으로 기념적인 가치는 가변적인 측면이 적다. 즉, 시대가 변화해도 늘 동일하게 존재하는 가치인 경우가 많다. 이에 비해 현재의 가치는 표현 그대로 당대의 미감이나 취향 또는 사상과 부합했을 때 인식되는 가치들로서 상대적인 측면이 존재한다(Riegl, 1903: 23).

또한 리글은 보존에 있어서 다양한 가치들 사이에서 서로 충돌하는 면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이로 인해 보존의 목표와 개입의 정도가 달라진다는 점을 상기시키고 있다. 예를 들어, 연대적 가치는 문화유산의 창작단계에서부터 현재까지 자연적으로 일어난 퇴락과 세월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는 데에서 평가되는 가치로서 향유하는 이들로 하여금 옛것에 대한 향수나 감상적 감흥을 불러일으킨다. 반면, 역사적 가치는 문화유산이 창작된 순간의 모습을 최대한 지니고 있을 때에 그 가치가 높아지는 성격이 있으므로, 세월의 흔적을 담아야만 평가되는 연대적 가치와는 서로 상충하는 요소가 있다(Riegl, 1903: 34). 이 때문에 보존에 있어서도 역사적 가치를 고려하는 입장에서는 문화유산의 퇴락을 적극적으로

방지하고자 하고, 연대적 가치를 고려하는 입장에서는 퇴락한 모습을 그 보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극적으로 저지하려는 목표를 추구하게 된다. 더더구나 사용이나 활용 가능성에 의해 높아지는 사용적 가치는 연대적·역사적 가치와는 보존 방식에 있어서 충돌할 수밖에 없다.

또한 의도적인 기념적 가치는 문화유산의 창작 당시 그 목적이 특정 사건을 기념하거나 교화하기 위한 목적과 의도로 인해 형성된 가치이다. 예를 들어, 광장 한복판의 석주에 대중을 교화하는 목적으로 새겨진 문구가 있다면, 이는 의도적인 기념적 가치를 지니게 된다. 그런데 이 문구가 지워졌다면 문구를 복원해야만 본래의 가치가 그대로 유지되므로, 이때에는 역사적 또는 연대적 가치를 중시하는 보존과는 달리 복원이라는 다른 형태의 개입이 이루어지게 된다.

리글은 전대에 소수의 가치들만을 고려하거나 시대적인 사상에만 부합한 무분별한 복원에 대해 비판하고, 개별 문화유산의 특성과 창작 의도 등에 따라 구분하여 보존의 방향을 설정하고, 이 과정에서 가치의 상충적인 측면들을 고려하여 서로 절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 2. 베니스 헌장에 나타난 가치(1964)

앞서 설명한 1877년의 선언문과 리글이 논의한 가치의 다양한 측면에 대해 세분화 하는 작업과 보존행위의 연관성에 대해 언급한 내용들은 1964년 베니스 헌장에 상당 부분 반영되고 걸러졌다. 헌장의 Article9와 13에서 미학적(aesthetic), 역사적(historical), 고고학적(archaeological) 가치 등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면서도, 간접적으로는 시대적 흔적을 담고 있는 연대적 가치측면이나 활용 등을 통한 사용가치 등을 암시적으로 담아내고 있다.

베니스 헌장은 19세기에 행해진 이상적 형태나 양식주의에 입각한 무분별한 복원을 비판하는 20세기 전반기의 흐름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보존과 복원을 구분하여 그 원칙을 서술하고, 특히 복원에 있어서 전대에 등한시 했던 역사적인 가치를 강조하여 문화유산의 역사적인 흔적을 지우거나 왜곡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정립하였다.

### 3. 라이프가 논의한 가치의 종류(1984)

1980년대 들어서면 문화유산이 지니고 있는 가치의 다양한 측면은 이미 관련 학자나 전문직업인 사이에서는 널리 알려져 문화유산의 관리 및 보존에 있어서는 핵심적인 요소로 등장하고 있다. 또한 문화유산을 향유하는 집단이 특정 부류의 집단, 즉 학자나 예술품 애호가와 개인 소장가로 한정되지 않고 일반 대중 전체로 확대되었기 때문에 문화유산의 가치는 더욱 다양한 관점에서 평가되었다. 동시에 리글이 앞서 한 논의를 발전시켜 보존행위의 수위와 개입정도를 결정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다양한 가치들 간의 상관관계나 충돌을 일으키는 측면에 대해서도 다각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흐름을 반영하는 대표적인 글이 고고학자인 라이프가 1984년에 내놓은 논문이라고 할 수 있다.

라이프는 가치의 종류를 크게 정서적·상징적(associative·symbolic), 정보적(informational), 미학적(aesthetic), 경제적(economic) 가치로 나누었다. 그리고 각 가치에 대한 정의와 함께 보존에 있어서 염두에 두어야 할 다양한 속성들에 대하여 상세히 분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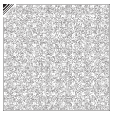
먼저, 라이프는 정서적·상징적 가치를 매우 인류학적 관점에서 서술하였다. 그는 인간이 배움의 과정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상징이며, 상징적인 것을 통해서 자연 현상이나 다양한 정보를 습득하고 익히고, 기존의 지식을 더욱 확장하게 된다고 하면서, 이를 가능하게 하는 가장 영속적이고 확고한 상징물이 바로 형태와 재질이 있는 물질적인 산물이라고 하였다. 또한 인간은 본능적으로 무언가를 배우고 익히며 이를 전승하고자 하는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있어서, 예술품이나 건조물, 주변의 자연경관 등의 물질적인 산물은 한 사회에서 오랜 시간동안 해당 문화의 각종 정보를 지속적으로 전승시키는 매개체로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고 인식하였다(Lipe, 1984: 4~5). 결국 문화유산이 지니고 있는 정서적·상징적 가치는 물질적 것에 인간이 부여하는 무형의 의미를 합한 유·무형적 측면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다.

정보적 가치는 건축사, 미술사, 고고학 등의 분야에서 문화유산을 대상으로 하는 학술적인 연구를 통해 밝혀진 정보에서 생기는 가치이다. 라이프는 문화유산에 대한 연구를 통해 얻는 정보는 유관 분야의 학문, 즉, 민속

학, 문화인류학, 건축학, 역사학, 예술 심리학 등의 분야들을 함께 연구할 때 더욱 신뢰할 수 있고, 상세하게 과거의 역사를 재현해 낼 수 있게 된다고 보았다(Lipe, 1984: 6). 그리고 개별 문화유산에 대한 모든 정보가 지금까지 다 밝혀진 것이 아니고 미래에 새로운 관점에서 재해석되거나 보다 많은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수정될 수 있으므로, 단순히 현재적인 관점에서 해당 문화유산의 정보적 가치가 다른 가치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을지라도 보존대상에서 제외하거나 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Lipe, 1984: 7).

세 번째로 미학적 가치에 대해서는 미적 감흥이 인간의 심리적인 측면과 깊이 연관되어 있어서 감상자의 선호도와 특정 기준에 따라 그 강도와 정도가 결정되며, 그러한 선호도와 기준은 감상자가 속한 문화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보았다(Lipe, 1984: 7). 즉, 문화유산의 미적 가치는 양식적 특징이나 아름다움에 대한 전통적 관념과 미의식, 미술사 연구에서 파생된 예술작품에 대한 평론, 해당문화가 보유하고 있는 미적 관념 등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문화유산을 감상하고 활용하는 과정에서 해당 문화유산이 본래 창작자가 의도한 바와는 다르게 현대인들이 전혀 새로운 방향과 각도에서 그 미적 가치를 인식하고 감상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하였다(Lipe, 1984: 7). 이러한 관점은 뒤에 언급할 가치평가에 영향을 주는 요소 중에서 사회적·문화적 측면에 대한 부분으로서 진정성에 대한 문화적 다양성과 관련하여 매우 선구자적인 관점으로 생각된다.

라이프가 경제적인 가치를 다양한 가치의 종류에 포함시킨 것은 2차 대전 이후 유럽에서 일어난 보존과 개발간의 첨예한 대립에 있어서 보존을 위한 철학적 논리와 기반을 제공하기 위해서였다. 그는 현대 사회에 존재하는, 또한 앞으로 생산될 수많은 문화유산을 모두 보존하고 활용할 수는 없기 때문에, 결국 경제적인 가치와 효율성을 평가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는 문화유산이 지니고 있는 정보적 가치나 활용적 측면은 금전적으로 환산하기 어렵고, 정보를 얻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이 크기 때문에 단순한 경제 논리에 의해 희생되기 쉬운 가치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미리 경고 하였다(Lipe, 1984: 8). 그렇기에 단순히 금전적이 가치 뿐 만 아니라 교육 자원 등으로 활용 가능한 측면 등도 이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문화유산의 정보적인 가치 보존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장논리에 의해 부담되기는 어렵고 정부 또는 공공의 기금으로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법적으로 보완하기 위한 관련법 등의 제정에 대한 필요성도 언급하였다(Lipe, 1984: 9).

라이프는 문화유산을 보존해야 하는 당위성에 대하여, '문화유산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해하면 사적인 가치에 불과한 유산이 되지만, 그 자체가 지니고 있는 다양한 가치들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공공의 이익과 감흥을 주게 된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문화유산을 손상시키거나 없애버리려는 시도는 문화유산을 사적인 소유물로 이해하는 것이 되고, 한 개인의 이익 또는 소수 집단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다수의 이익을 희생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경고하였다. 그는 앞서 언급한 문화유산의 다양한 가치들이 내재된 문화유산을 통해 인간은 인류의 영속성을 확신하게 되고, 보다 큰 범위에서 인류 공동체 의식을 느끼게 되므로 인류 공동의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문화유산을 지켜야 한다는 당위성을 강조하였다(Lipe, 1984: 10).

#### 4. 미국 게티연구소의 가치에 관한 보고서 (1999~2002)

게티 연구소의 가치에 대한 3권의 연구보고서는 전대에 이어온 가치에 대한 논의들을 보다 실질적인 측면으로 발전시켜 문화유산의 다양한 가치들을 어떻게 문화유산의 보존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1999년에 발간된 1집, *Economics and heritage conservation*(Mason, 1999)에서는 현대 사회에 있어서 늘 쟁점이 되어온 문화유산의 경제적 가치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2000년에 발간된 2집, *Values and heritage conservation*(Avrami et al, 2000)에서는 문화유산의 다양한 가치들을 상세히 정의하였다. 마지막으로 2002년에 발간된 3집, *Assessing the values of cultural heritage*(de la Torre, 2002)에서는 가치를 평가하는 방식과 문제점을 논의하였다.

이들 세 권의 보고서에서 주목할 점은 가치 평가에 있어서 문화유산의 물리적·유형적 측면만을 중요시하기 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적·무형적 측면을 대등

한 관점에서 함께 고려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특히, 2000년에 발간한 보고서에서는 가치에 대한 접근을 문화유산을 보존하는 행위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접근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접근방식은 최근 20여 년간 서구유럽의 정부 또는 비정부 기구들이 가치 중심적인 도시계획 및 역사도시 보존 관리에 대한 정책을 입안해 온 것과 그 맥을 같이한다. 부에라 현장을 제정한 호주의 ICOMOS나 미국의 National Park, 그리고 본 논문의 후반부에 살펴 볼 영국의 English Heritage는 정책을 변화·발전시키는 과정에서, 1970년대와 80년대에 나온 문화유산의 다양한 가치들에 대한 연구를 문화유산의 관리 방안의 수립에 접목시켜, 'integrated conservation' 또는 'informed conservation' 등과 같은 방법론을 수립하고, 이를 정책에 적극적으로 도입하도록 하였다. 즉 문화유산의 다양한 가치와 정보를 가지고 종합적인 보존방안을 수립하는 총체적인 형태의 방법론이 도입된 것이다.

이는 문화유산의 보존을 행위 자체이기 보다는 하나의 사회적인 과정으로 인식하는 사고의 전환이 있었기 때문이다. 앞에서 잠시 언급한 바와 같이 보존행위를 단순히 과학기술에 대한 독립적인 연구나 실행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차원의 사회적 요소들과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서로 얽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사회적·문화적 행위로서 합의와 이해를 통해 문화유산의 미래를 결정해야 한다는 관점으로 전환된 것이다.

사회적 과정으로서 보존을 인식하면 역으로 문화유산이 지닌 가치에 대해서도 새로운 인식이 가능해진다. 즉, 문화유산이 지니는 다양한 가치들은 변하지 않는 고정된 개념이 아니라 유동적인 개념으로 인식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문화유산이 창작될 당시에 지니고 있었던 고유의 예술적·역사적 가치가 있는가 하면 후대인들이 새롭게 부여하고 인식하는 사용적·경제적 가치들이 새롭게 생겨날 수 있다. 그러한 관점에서 보면, 문화유산의 가치는 그것을 평가하는 사회 구성원들의 문화적·사회적 성향에 따라 평가방식이나 선호도, 개별가치의 중요도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시대적으로도 변화할 수 있다는 전제가 성립된다.

이 보고서에서는 그러한 관점에서 보존행위의 단계별 과정과 관계를 도식화 하였다(Avrami et al, 2000: 4-5).

먼저 문화유산이 지닌 가치들은 우리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그에 따라 사람들은 보존에 대한 의지를 가지게 되며, 구체적인 보존계획 및 관리방안을 수립하여, 최종적으로 문화유산에 대해 개입하게 된다는 3단계로 그 행위를 도식화하였다. 때문에 이 과정을 이행하는데 있어서 문화유산의 가치를 규명하는 것을 첫 단계로 보았다.

가치를 보다 다각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문화적·사회적 다양성을 이해하고, 문화유산의 가치를 평가하고 새롭게 창출하는 특정 시대와 특정 장소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이며, 그들이 왜 그리고 어떤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지 이해하여야 한다. 또한 보존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다양한 이해당사자 집단들 간의 상관관계를 읽어내야 한다. 그리고 문화유산에 대한 이해 방식과 가치 부여방식, 그리고 그에 따라 의사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유형화하고, 보존이라는 사회적 행위와 과정에 대해서 좀 더 학문적으로 체계화시켜 가치를 중심으로 한 문화유산의 보존 및 관리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이러한 게티연구소의 가치에 대한 연구는 가치에 바탕을 둔 정책입안에 있어서 논리적이고 철학적인 토대를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 가치의 다양한 측면

이번 장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문화유산의 가치에 대한 정의들을 토대로 한국 문화유산이 지니고 있는 다양한 가치들을 논해 보고자 한다. 이에 앞서 앞에서 살펴 본 연구 문헌에서 언급된 가치의 종류를 종합하여 먼저 표로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 주요 문헌에 언급된 가치의 종류

가치 종류	SPAB의 선언문(1877)	리클(1903)		라이프(198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rtistic</li> <li>• picturesque</li> <li>• historical</li> <li>• antique</li> <li>• substantial</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ge</li> <li>• historical</li> <li>• deliberate</li> <li>• commemorative</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commemorative</li> <li>• contemporary</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rtistic</li> <li>• use</li> <li>• newness</li> </ul>

이번 장에서 서술하는 가치의 다양한 측면들은 유형문화유산에 한정하여 서술하되 그 안에서는 특정 분야를 염두에 두지 않고, 가능한 한 포괄적인 관점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다양한 가치들을 모두 서술하고자 한다.

문화유산이 지니고 있는 고유의 가치들에 추가적으로 이를 활용하고 관리하는 사람들이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면서 가치의 종류가 늘어나고 중요도가 변화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가치의 종류는 광범위 하며, 한 사회의 공동체 구성원들의 다양한 의식구조나 세대 간의 가치관 등에 의해서 다양한 방식과 기준으로 분류될 수 있다.

문화유산에 존재하는 혹은 발굴될 수 있는 가치들은 해당 문화유산을 다각적 측면에서 올바르게 이해하고, 보존해야 할 문화유산의 유·무형적 가치들 중에서 반드시 보존해야 하는 부분들을 명확히 하며, 활용방향을 설정하는 데에 신호등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해당 문화유산의 다양한 가치를 규명하고, 개별 가치의 중요성을 가능한 한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다음에 서술할 가치들은 하나의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 1. 역사적(정보적) 가치

호주 ICOMOS의 부에라 헌장(Burra Charter)이나 한국의 문화재 보호법에서는 문화유산을 통해 사회와 문화, 정치 전반에 대한 시대적 상황이나 역사적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가치를 ‘역사적 가치(historical value)’ 라고 부르고 있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그 용어가 지닌 모호성 때문에 역사적 가치라는 용어와 정보적 가치를 별개로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의미로 보았다.

정보적 가치는 표현 그대로 하면, 문화유산이 지니고 있는 각종 정보나 지식에서 파생하는 가치이다. 즉, 역사적 사실이나 당시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정보, 고고학적 층위나 연대를 알려주는 정보, 미술사적 측면에서 시대 양식이나 미감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정보, 그리고 당시의 생활상이나 믿음 또는 사유체계 등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민속적 정보 등이 모두 이에 해당한다.

라이프가 ‘모든 문화유산은 과거에 대해서 우리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 (Lipe, 1984: 6)고 하였



듯이, 우리는 문화유산이 지니고 있는 다양한 정보를 통해 현재의 삶과 깊이 연관되어 있는 과거의 다양한 면을 이해하게 된다. 이러한 정보적인 가치는 크게 보면, 두 분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연구적인 측면이고, 두 번째는 교육적인 측면이다. 문화유산의 정보적인 가치를 통해 행해지는 이들 두 행위는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깊은 상관관계가 있다(Grenville, 1993: 98). 즉, 학술적 연구를 통해 얻어진 정보는 교육을 위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거꾸로는 교육적 효과를 위해 연구를 더욱 장려하게 되므로 두 행위의 내용과 질적 측면은 상호 영향관계에 있는 것이다. 먼저, 연구적 측면에서 보면, 문화유산은 사회, 예술, 종교, 민속, 인류학 등의 분야에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러한 순수한 학문적 연구는 일반 대중이나 다음 세대들을 교육시키는 데에 직접적인 자료로 활용된다. 그리고 교육으로 인한 역사에 대한 관심의 증가는 학문적 분야의 깊이 있는 연구를 장려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그 외에도 정보적 가치는 후에 설명할 정서적 가치나 사회경제적 가치를 높이는 역할을 한다. 특히 현재까지 알고 있었던 정보들보다 유사한 시대 양식과의 비교나 새롭게 발굴되는 정보를 통해 밝혀지는 과거에 대한 내용은 해당 문화유산을 공유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사회적·문화적·민족적 연대감을 형성시키거나 강화하는 데에 기여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북한의 불교유적이거나 유물들에 대한 연구를 통해 한반도 전체에 있어서 유물간의 연관성이나 공통점을 새롭게 이해하게 되고, 이를 통해 분단국가의 상황에서 상호 간의 민족적 연대감을 강화시키는 경우가 이에 해당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정보적 가치는 그 자체의 속성상 그 내부에 모순점을 지니고 있다. 시대적으로 다양한 층위를 가지고 있는 문화유산의 경우, 예를 들어 사찰의 벽화와 같이, 전대의 물리적 흔적 위에 후대의 예술행위가 첨가되면서 하나의 문화유산에 여러 시대의 물질적 층위가 겹쳐진 경우에는 한 시대의 물리적인 형태나 완전성을 손상시켜야만 전대의 정보를 알 수 있다. 특히 전대 양식이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유물이 매우 드문 경우에는, 전대를 이해하기 위한 정보적 가치가 클 수 있으므로, 정보적 가치와 해당 문화유산의 물질적 측면에 대한 보존은 때로는 서로 상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 2. 예술적 가치

문화유산이 지닌 예술적 가치는 일차적으로는, 보는 이로 하여금 미적 감흥을 일으키게 하는 요소로서, 부에라 현장의 2.2항에서는 예술적 가치는 '감각적 인식의 측면을 포함하는 것으로 그 (판단)기준은 대상물의 형태, 스케일, 색상, 질감, 물질적 부분에 있다' 라고 하였다. 또한 라이프는 '예술가치(art value, 독일어로 Kunstwollen)'를 절대적인 변하지 않는 가치가 아니라 당대의 미적 기호나 세월이 흐름에 따라 변화될 수 있는 상대적 가치로 설명하고, 당대의 'Kunstwollen'에 부합할 때에만 인식될 수 있는 가치로 보았다(Riegl, 1903: 42). 그리고 예술적 가치의 기준은 매우 주관적인 인식에 기초하기 때문에, 감상자가 속한 문화나 기호에 맞추어진 기준과 선호도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된다(Lipe, 1984: 7). 그래서 어떤 시대에는 주목받지 못했던 문화유산이 다른 시대가 오면, 그 문화유산의 예술적 표현이나 양식, 또는 부수적인 미적요소가 당대의 미적 기준에 부합하면서 높은 예술적 가치를 지닌 유물로 재평가 되기도 한다.

그러나 앞에서 리글과 라이프가 지적한 바와 같이 예술적 가치는 시대적·문화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유연성을 지니고 있어서, 보존에 있어서 그러한 유연성을 세심하게 배려하지 않으면 주관적·시대적인 판단으로 예술적 가치의 일부를 손상시킬 수 있다. 19세기에 유럽을 휩쓴 고딕 부활 운동으로 인해 특정 양식을 선호했던 건축적 미감과 함께 종교적 신념에 있어서도 고딕양식이 가장 완벽하게 기독교적 이념과 신의 가르침을 표현할 수 있다고 믿었던 탓에, 로마네스크 양식이나 그 이전의 양식들을 모두 고딕양식으로 교체하는 일들이 무분별하게 이루어졌던 사실에서, 그 예를 쉽게 볼 수 있다. 또한 문화적인 측면에서 보면 한국의 경우 하나의 장소에 대한 예술적 가치를 개별 건물에도 볼 수 있지만, 건물간의 조화나 불교 또는 유교적 사상이나 원칙에 의해 의도적으로 그 배치나 크기를 계획한 경우에는 이러한 의도성과 예술적 가치가 깊이 연결되어 있다. 이와 같이 예술적으로 가치 있는 개별 건물들이 한 장소에서 상호 연관성을 가지면서 유기체로서 의미 있게 연결되어 있는 경우, 이러한 요소들을 존중하여야만 해당 유적지의 총체적인 예술적 가치가 보존될 수 있다.



또한 예술적 가치는 시대적 미감이나 문화적 특성에 의해 변화할 수 있는 유연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다음에 설명할 감정적(상징적) 가치와도 깊은 연관이 있다. 조선시대의 백자와 고려시대의 청자가 지니고 있는 미감은 차이가 있으며, 이들간의 예술적 가치는 시대에 따라 다르게 평가될 수 있으며, 이는 특정시대에 특정문화가 공동으로 지니고 있는 예술적 정서와 깊은 연관이 있다.

### 3. 감정적 가치(상징적 가치)

감정적 가치는 특정한 사회적, 문화적, 시대적 상황 내에서 평가되는 가치로서 공동체적 또는 민족적 감정이나 국가적 정체성 등과 같이 해당 사회 구성원이 문화유산을 통해 지니게 되는 물질적·정신적 연대감이나 공통된 정서와 감정을 말한다. 때문에 라이프는 문화유산이 다른 기록물이나 역사서 등이 할 수 없는 유·무형적 연대감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다는 점에서, 감정적 가치를 문화유산의 핵심적인 가치라고 암시하였다(Lipe, 1984: 4). 여기에는 대중적인 감정 뿐 만 아니라, 하나의 종교집단이 문화유산을 통해 믿음과 종교적 연대감을 불러일으키는 경우 또는 한 개인이 문화유산과 연관된 경험을 통해 형성한 개인적 감정도 포함될 수 있다.

이러한 감정적 가치는 그 속성상 한 집단이나 개인에게 상징적 의미를 전달하고 형성하는 역할을 하므로, '상징적 가치'로 부르는 경우도 있다. 또한 부에라 현장에서는 이 가치에 '다수 또는 소수의 사람들에게 정신적, 정치적, 국가적, 문화적 감성을 일으키는 장소에 대한 질적 측면들이 포함된다'고 언급하면서, 이를 '사회적 가치(social value)'라고 부르고 있다(ICOMOS Australia, 1988: 17).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면 종교적 문화유산이 종교적인 기능과 신앙체계를 뛰어넘어 오랜 시간 동안 사회구성원이나 국민들에게 하나의 공동체적인 정체성을 형성하는 역할을 한다. 한국의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 외국인들이 불교 사찰을 찾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일 것이다. 현재 불교가 기타의 다른 종교에 비해 현재 수적으로 지배적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동안 한국을 불교국가로 인식되어 왔고, 불교의 종교적 관행과 습관이 한국 문화의 일부로, 그리고 사고와 삶의 방식으로 자리 잡았다고 믿기 때문에, 내국인이나 외국인 모두에게 불교는

한국문화의 근간을 이루는 사상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불교회화, 조각, 공예, 그리고 건축물에 표현된 예술적 미감이나 기술들 역시 종교예술품을 넘어서서 한국의 예술과 문화를 대표하는 문화유산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감정적인 가치는 다음에 언급할 사회경제적 가치와 깊은 연관이 있다. 국내외 또는 지역적으로 한 사회와 문화를 정의하는 요소로서 감정적인 가치는 사회경제적인 가치를 유지시키고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한국의 문화를 체험하기 위해서 외국인들이 오래된 고찰을 방문하거나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은 사찰에 경제적인 소득을 가져오게 된다. 또한 내국인들에게는 사찰이 정서적 안정감을 안겨주는 눈에 보이지 않는 혜택을 주고 있다.

그러나 문화유산에 대한 감정적인 선호도는 앞서 언급한 정보적 가치와는 서로 상충하는 면이 있다. 역사적인 수치심으로 인해 일제강점기에 생성된 문화유산을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존에 있어서 감정적인 측면이 앞서서 정보적인 가치나 예술적인 가치가 객관적인 시각에서 평가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 4. 사회경제적 가치

사회경제적 가치는 단순히 문화유산이 지닌 금전적 가치뿐만 아니라, 개인 또는 집단에게 주는 정서적 안정감, 존재 자체로 인해 파생되는 간접적 가치, 활용으로 인한 교육적·오락적 가치 등 금전적으로 환산할 수 없는 긍정적 효과와 혜택을 모두 포함한다.

직접적인 경제적 가치로는, 문화유산 그 자체가 지니고 있는 금전적 가치와 더불어 해당 문화유산을 공개함으로써 인해 발생하는 관람료와 기부금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간접적인 측면에서 보면, 각종 문화 활동과 관광 증진, 교육적 효과 등이 사회경제적 가치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한국의 사찰은 꼭 종교적인 목적이 아니더라도 국립공원 내에서 많은 등산객에게 휴식처를 제공하고, 교육적인 역할을 하는데, 이러한 측면을 간접적인 경제적 가치로 볼 수 있다.

실제 영국에서는 성공회 교회가 제공하는 문화적 혜택과 여기에서 활동하는 각종 자원봉사자의 활동을 경제



적인 가치로 환산하여 이를 영국의 중세 성당의 문화유산의 사회 경제적 가치에 포함시키는 방법에 대한 연구를 내놓은 적이 있다. 또한 많은 성당들이 쾌적하고 경관이 좋은 자연환경 속에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에게 정서적 안정감과 휴식처가 되며, 희귀식물이나 생물의 번식을 돕는 간접적인 측면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여, 그에 대한 보존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하였다(<http://www.caringforgodsacre.co.uk> 참조).

그러나 사회 경제적인 가치 중에서 금전적인 가치가 강조될 경우, 오히려 비금전적 측면이나 예술적 가치 또는 정보적 가치를 해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관람료나 그 외의 금전적 수입을 높이기 위해서 건물을 증축하거나 신축하는 경우, 혹은 방문객의 진입 동선을 변경하여 본래 사찰이 지니고 있는 고유한 가치를 손상시키는 경우도 있으며, 이로 인해 예술적 가치가 줄어들어 예술적 감흥을 감소시키고, 정보적 가치를 손상시켜 총체적 가치를 줄어든다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지금까지 위에 언급한 네 가지의 가치 외에도, 문화유산의 가치는 시대에 따라 향유하고 관리하는 자의 성향이나 문화적인 시대적인 차이로 인해 늘 변화할 수 있는 속성이 있으며, 이로 인해 현재까지는 존재하지 않았지만 미래에 새로운 가치들이 창출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문화유산이 지닌 '잠정적 가치'를 지속적으로 찾아내기 위해서는 하나의 문화유산에 대한 가치 평가가 한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문화유산의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본 장에서는 문화유산의 가치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여기에서는 진정성, 시대적 요소와 사회적 요소들이 문화유산의 가치를 평가하는 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이들이 가치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 서술할 것이다. 특히 진정성에 대한 역사와 개념, 그리고 다양한 측면들을 여기에서 모두 서술하기에는 지면이 부족하고, 또한 본 논문의 주

제가 문화유산의 가치에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므로 본 장에서는 가치와 연관이 있는 부분만을 간략하게 언급하고자 한다.

### 1. 진정성

#### 1) 개념적 측면

진정성은 어원적으로 진품의, 본래의 모습을 의미한다. 서양에서는 16세기에 예술품 애호가들 사이에서 그리이스·로마의 조각 작품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위작과 진품을 구분하기 위한 의미로 사용하였으며, 모방이 불가능한 작가의 독특한 창의성이나 예술성들을 일컫는 포괄적 의미로도 사용하였다. 진정성은 20세기 서구유럽을 중심으로 문화유산 보존에 있어서 핵심적 개념으로 등장하기 시작하였으며, 서구 문화의 지배적인 사상인 물질주의에 입각하여 유형적 측면의 진정성이 강조되었다. 그러나 20세기 후반에는 문화유산 보존원칙에 있어서 문화적 다양성이 부각되면서, 동양의 무형적 측면을 중시하는 진정성의 또 다른 측면에 대한 이해와 연구가 활발히 시작되어, '진정성'의 개념에 유·무형적 측면이 모두 포함되었으며, 이러한 개념의 변화는 1992년에 작성된 나라문서에서 명문화되었다(Larsen, 1995: xxi-xxiii).

결국 '진정성'의 개념에 해당 문화유산을 제작한 작가나 장인의 의도, 예술성 등 무형적 측면의 진정성과 무형적 측면이 눈에 보이는 형태로 구현된 형태, 재료 등의 유형적 진정성을 모두 포함시키게 되었다. 국내에서 사용하는 '원형' 개념은 '형태의 진정성'으로서 진정성의 한 측면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진정성의 다양한 측면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 \* 형태 또는 디자인의 진정성(form)

'형태'는 문화유산의 창작자가 시대적·개인적·미적 감각, 창작 의도, 기능 등을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구현한 것으로, 한 문화유산은 창작 또는 제작된 순간부터 그 형태가 변화되기 시작한다. 그러므로 보존하고자 하는 문화유산의 형태는 당대인들의 평가나 해석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정의되어 왔다. 예를 들어 유럽의 중세 성당의 보존에 있어서 19세기의 고

덕부활이 크게 유행할 당시에는 중세성당에 대한 형태의 진정성을 고딕 양식으로 규정하고, 수많은 중세 성당을 고딕 양식으로 복원하거나 고딕양식의 요소만을 보존하였으나, 20세기 이후부터 현재까지는 형태의 진정성에 후대의 첨가된 양식 요소들을 포함시킨 모습으로 규정하고 있다.

#### \* 재료의 진정성(material)

재료의 진정성이란 문화유산의 창작 또는 제작 시에 사용된 재료를 의미한다. 또한 창작 또는 제작 시에 사용된 재료가 손상 또는 손실되어 부득이하게 교체해야 하는 경우 재료의 진정성은 창작시에 사용된 동일한 재료와 재질까지도 그 의미를 확대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문화유산에 사용된 재료와 재질은 창작자의 의도와 시대적·문화적 특징을 반영하기 때문이다.

#### \* 제작기법 또는 장인기술의 진정성(craftsmanship)

재료의 진정성과 마찬가지로 문화유산의 창작 또는 제작 시에 사용된 기법이나 기술, 제조 방법을 말한다. 또한 숙련된 장인기술이나 독창적인 제조 방법, 장인 정신 등도 포함된다.

#### \* 주변 경관 및 관련 유물과의 전체적 조화에 따른 진정성(setting)

해당 문화유산이 자체적으로 지니고 있는 예술적, 역사적 의미 외에 고도(古都) 계획의 일부분으로 또는 특정한 종교적 사상이나 전통 가치를 표현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사찰이나 서원에서 개별 건물이나 유물을 배치하고, 풍수지리 사상에 입각하여 자연과 조화를 이루도록 건물을 배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 \* 기능의 진정성(function)

문화유산이 제작 또는 창작될 당시에 해당 문화유산에 부여된 본래의 기능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종교적 건물의 경우 예배나 예불, 수행 등 종교적 행위에 필요한 장소로서의 종교적 기능이 부여되며, 회화작품의 경우 감상 또는 시대나 개인적 미의식을 표현하는 기능이, 그리고 공예품의 경우 사용목적에 따른 실용적 기능이 부여된다.

문화유산의 진정성은 문화유산이 제작 또는 창작된 시기의 진정성이 고정 불변한 것이 아니라, 시대와 문화에 따라 한 문화유산의 진정성에 대한 해석과 평가가 유동적일 수 있다. 예를 들어, '형태의 진정성'의 경우, 과거에는 문화유산이 창작 또는 제작된 당시의 모습으로 이해하였으나, 현재에는 문화유산이 창작될 당시의 모습이 시대를 흐르면서, 손상 또는 후대인의 첨가나 변형 등에 의해 끊임없이 변화되어 온 모습들을 모두 형태의 진정성에 포함시키고 있다.

## 2) 진정성과 가치

진정성은 가치를 측정하고, 가치의 질과 양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요소로서, 가치의 중요성을 검증하고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예를 들어, 해당 문화유산이 본래의 형태와 재료를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경우, 그 정보적인 측면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면서 정보적인 가치의 질이 높아지게 된다.

그러나 가치와 마찬가지로 진정성 역시 바로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시대와 문화에 따라 진정성에 대한 해석과 정의가 달라질 수 있다. 이러한 진정성의 유동적인 측면은 기존의 가치를 강화시키기도 하고,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내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그런데 진정성에 대한 지금까지의 개념은 매우 서구 중심적인 관점에서 발전되어 왔기 때문에, 이 개념을 가지고 그대로 한국 문화유산의 가치평가과정에서 적용할 경우, 한국 문화유산이 지니고 있는 가치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서구에서는 유명한 작가의 작품을 모방하여 그린 회화작품을 진정성 있는 예술작품으로 인정하지 않지만, 한국과 중국에서는 전통적으로 대가의 회화작품을 보고 그 작품에 깃들여 있는 정신적인 세계를 본받아 그리는 '임', '모', '방'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며, 이러한 작품 역시 진정성 있는 작품으로 인정하여 왔다. 이는 진정성의 개념이 서구와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이다.

또 다른 예로, 목조건축의 경우 석조건축에 비해서 재료의 내구성이 상대적으로 약한 편이므로 지속적으로 부재를 교체하는 방식으로 수리해 왔는데, 여기에 석조건축을 기준으로 하는 진정성 개념을 적용한다면, 재료



의 진정성은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 즉 한국의 목조건축에 있어서 재료의 진정성은 신축 당시 사용한 원 부재의 진정성과 함께 교체한 부재의 재료와 기법도 함께 고려하고, 세대를 거치면서 전승되는 장인정신과 기술의 원형을 존중하여 원 부재의 재료와 기법과 동일할 경우, 진정성 있는 문화유산으로 인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결국 서구의 진정성 개념이 물질적·유형적 측면을 중시한다면, 동양의 진정성은 장인기술 등과 같은 정신적·무형적 측면을 중시하는 입장에서 개념을 수정해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가치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진정성의 각 요소들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먼저 진정성에 대한 서구적 개념을 한국의 문화유산에 맞게 재 정의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 2. 역사적·사회적 요소

문화유산이 지니는 가치 평가는 매우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당대인들의 기호와 선호도에 따라서 시대적으로 변화할 수 있다. 실제 19세기 유럽에서 고딕 이후의 바로크 또는 로코코 양식의 유물들에 대한 예술적 가치를 낮게 평가하고 없애버리거나 고딕 양식으로 새로 제작하여 교체하는 경우가 많았다. 한국에서도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감정적인 가치를 중시하여, 일제 강점기에 파손되거나 철거된 문화유산을 복원하는 것에 호의적인 입장에서, 근대문화유산이 지닌 정보적 가치가 상대적으로 희생되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 들어서는 근대문화유산도 역사의 일부로서 보존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경향으로 변화하였다. 때문에 특정한 가치에 대한 선호는 흑백의 잣대로 옳고 그름을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시대적인 흐름으로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인 요소로는 문화적 다양성과 이해 집단의 다양성을 들 수 있다. 문화유산에 대한 보존은 과학적 지식과 기술만으로 그 행위가 가능하기 보다는, 한 사회와 문화 속에 내재된 사상과 철학, 문화유산에 대한 이해와 다양한 이해집단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총체적인 사회현상이자 활동이다. 문화유산을 생산해 내고, 의미를 부여하고, 가치를 평가하는 주체는 그 사회와 문화의 구성원들이므로, 그 구성원들이

속한 문화적 특수성과 다양성, 그리고 사회적 상황에 따라 가치평가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문화유산을 보존하기 위해 가치를 평가하는 과정에서는 반드시 해당 문화의 특징과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며, 각 이해당사자 집단이 무엇을 생각하는지, 그리고 서로 다른 이해당사자 간의 관계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평가된 가치가 소수의 특정 연령집단이나 이해 당사자의 선호도나 기호만을 반영하지는 않았는지 점검하여, 객관적 입장에서 가능한 한 광범위한 대중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가치평가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보다 논리적이고 현실적인 보존원칙이 수립될 수 있다.

## 가치론에 근거한 문화유산 보존원칙의 수립방안

마지막으로, 위에서 언급한 가치와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토대로 한 문화유산의 가치체계를 보존원칙을 수립하는 데에 어떻게 반영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론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문화유산의 가치론에 대한 학문적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하였기 때문에, 한국적 상황에 맞게 가치에 근거한 보존원칙을 수립하는 방법론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방법론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도 가치에 대한 충분한 연구를 토대로 실제 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및 행정을 위한 정책에 가치론을 도입한 영국의 사례를 가지고 우리 실정에 적합한 방안을 마련하는 초석을 다지고자 한다.

영국 English Heritage는 건축 문화유산에 대하여 지난 30년 간 가치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문화유산의 가치를 중심으로 하는 정책 변화를 꾸준히 추진하여 왔다. 영국은 건축 문화유산의 보존·관리를 위해 지정제도(listing system)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보존·관리는 직접적으로는 도시계획법(Planning Act, 2000 개정)과 그리고 실질적 실행 규정을 담고 있는 PPS5(Planning Policy Statement<sup>15</sup> : Planning for the historic environment)

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이 중에서 특히 PPS5는 PPG15 (Planning Policy Guidance 15 : Planning and the historic environment)을 개정한 것인데, 이는 영국 내 건축물 보존 환경의 변화에 정부 차원에서 대처하고, 이에 적합한 보존정책을 수립하고자 가치에 대한 연구와 몇 차례의 공개적 의견수렴 과정, 그리고 공청회를 거쳐 보존정책에 대한 개혁을 시도한 결과였다.

먼저 2002년에 *Creating public value* 라는 책자 발간을 통해 대다수의 국민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화유산에 대한 공통의 가치를 공적 가치(public value)로 규정하였다. 그리고 보존과 관리 정책에서 한 개인의 규정하고 중시하는 가치보다는, 다수의 대중이 중시하는 공적 가치를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인식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 내고자 하였다(Cabinet Office, 2002). 그 후 몇 년간 공적 가치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이와 관련하여 비공식적인 다양한 논의들이 전개되자, 2006년에는 컨퍼런스를 개최하여 좀 더 학문적이고 체계적인 토론의 장을 마련하였다(Clark, 2005). 컨퍼런스 논문집에서는 일반 대중들의 문화유산에 대한 인식태도와 그들이 문화유산에 부여하는 가치 등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정부의 문화유산에 대한 정책 변화에 대한 목적과 의도를 설명하는 등 현재 문화유산을 지키고 향유하는 전문가 또는 대중의 현재적인 담론들을 담아 일반 대중에게 배포하였다.

2008년에는 그러한 논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Conservation principles, policies and guidance for the sustainable management of the historic environment*를 발간하여 공적 가치를 중시하는 가치론에 근거한 철학적 토대 위에 문화유산에 대한 정책과 보존원칙을 수립하는 방법론을 제시하였다(English Heritage, 2008). 이 정책서는 5개

의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구성은 <표 2>와 같다.

여기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문화유산의 보존행위를 '변화에 대한 관리'라고 인식하는 새로운 접근방식이다. 문화유산이 과거로부터 미래까지 전혀 변화하지 않도록 하는 데에 보존의 목표를 둔다는 전통적인 이상을 과감히 버리고, 문화유산은 과거에도 변화였고, 현재도 변화하고 있으며, 미래에도 변화한다는 속성을 기본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은 매우 주목할 만하다.

이러한 접근방식은 '원형보존'과 같은 실현 불가능한 원칙에 대한 혁신적인 도전이며, 실현 불가능한 원칙에서 벗어나 보다 실질적이고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한 방향으로 관리 및 보존 원칙과 정책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변화는 최근 5년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는 '진정성' 개념의 비현실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이상적인 진정성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논의(Munoz-Vinas, 2009) 등과 같이 지금까지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여 왔던 고전적인 원칙들을 보다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 원칙으로 바꿔보려는 시도들과도 그 맥을 같이한다.

먼저, 본 보고서의 1장에서는 문화유산의 보존·관리에 대한 대 원칙을 다음의 6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 \* 원칙 1: 역사적 환경은 공유해야 할 자원이다.
- \* 원칙 2: 역사적 환경을 유지시키는 데는 다수가 참여하여야 한다.
- \* 원칙 3: 장소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 \* 원칙 4: 의미 있는 장소는 그 가치를 지속시킬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 원칙 5: 문화유산을 변화시키는 것과 관련한 결정은 합리적이고, 투명하며,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표 2 영국의 2008년 보존정책서의 목차

	제 목	내 용
1장	문화유산 보존의 원칙(Conservation principles)	보존의 대 원칙을 제시
2장	문화유산의 가치에 대한 이해(Understanding heritage values)	문화유산에 존재하는 다양한 가치들에 대한 정의
3장	문화유산의 중요성에 대한 평가(Assessing heritage significance)	가치의 총체인 '중요성'에 대해 평가하는 방식 제시
4장	문화유산에 일어나는 변화에 대한 관리 (Managing change to significant places)	문화유산의 변화에 대해 관리하는 방법 제시
5장	English Heritage의 보존정책과 지침 (English Heritage conservation policies and guidance)	보존 형태(개입의 형태)별 보존원칙과 지침 제시



\* 원칙 6: 결정사항에 대해 반드시 기록하고 후대에 교환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원칙 1과 2에서는 앞서 언급한 공적 가치 개념에 입각하여, 문화유산을 한 개인이나 일부 집단의 전유물이 아니라 공공의 자산임을 상기시키면서, 원칙 3과 4에서는 문화유산의 가치에 대한 이해와 보존의 중요성을 바탕으로 일반 대중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보존에 대한 공동의 책임의식을 부과하고 있다. 그리고

원칙 5와 6에서는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관리하는 데 있어서 합리적이고 일관성 있는 판단을 내리도록 권고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러한 6가지의 대 원칙을 전제로 하여 <표 3>에서 제시한 단계별 과정을 거쳐 보존·관리의 다양한 형태별로 실질적인 원칙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1단계 과정에서는 문화유산이 지닌 가치를 다음의 4종류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표 3 가치에 중심을 둔 문화유산 보존원칙 수립을 위한 단계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내용	문화유산이 지닌 가치에 대한 이해와 평가	문화유산의 중요성 (가치의 총체)에 대한 평가	의미있는 장소에 대한 변화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	문화유산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한 정책과 원칙의 수립

표 4 문화유산의 중요성에 대한 평가 시 점검사항

점검사항	내용
장소의 물리적 형태와 변화의 추이에 대한 파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역사, 재료, 건축 기법, 특징, 소유자의 연혁 등에 대한 조사</li> <li>• 사회적·문화적 특징과 같은 무형적 측면에 대한 조사</li> <li>• 조사된 자료에 대한 기록 및 데이터 베이스 구축</li> </ul>
해당 문화유산에 가치를 부여하는 이해공동체에 대한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 문화유산에 가치를 부여하고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사람이나, 이해공동체, 전문가 집단 등에 대한 이해</li> <li>• 다양한 분야와 집단의 사람들이 부여하는 가치의 종류와 중요도에 대한 평가</li> <li>• 단순히 자료에 근거한 조사 뿐 만 아니라 정서적 측면이나 개인적인 연관성 등 다방면에 걸친 폭넓은 조사</li> </ul>
문화유산의 가치를 장소의 물질적·물리적 측면과 연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앞서 파악된 유·무형적 특징들이 총체적 가치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지 파악</li> <li>• 도면이나 사진자료 등을 통해 가치의 정도와 연대 등을 시각적으로 표현하여 실제 장소에 어떠한 종류의 가치들이 어느 정도 중요한지를 표시</li> </ul>
파악된 다양한 가치들 간의 상대적인 중요도에 대한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유산의 보존원칙 수립과정에서 문화유산에 부여되는 다양한 가치들 간에 서로 대립하게 되는 경우, 적정선에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개별 가치들의 중요도를 파악해야 합리적 판단이 가능함</li> <li>• 문화유산에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거나 현재까지 파악되지 않았던 가치를 추가적으로 발굴하여 부정적인 가치를 보완하고, 보다 객관적인 평가를 할 필요가 있음</li> </ul>
부속된 유물이나 소장품, 그 외에 관련 유물이 문화유산의 총체적 가치에 기여하는 정도를 파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유산과 관련된 유물이나 부속된 소장품은 모두가 함께 어우러질 때 집합적인 가치의 총합이 증가하므로 이에 대한 파악 필요</li> <li>• 문화유산에 부속된 유물이나 소장품이 총체적인 가치를 파악하는데 필수 요소임을 인지하여야 함</li> </ul>
주변 경관 (setting)과의 연관성(context)으로 인해 생성된 가치의 총체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etting' 은 문화유산을 사용·활용하는 데에 있어서 중요한 자원으로 주변 환경과의 관계, 지역적 특성 등을 파악하여야 함</li> <li>• 'context' 는 한 장소와 다른 장소간의 연관성을 포함하는데, 이는 문화적, 지적, 공간적, 기능적 측면이 될 수 있음</li> </ul>
유사한 가치들을 지니고 있는 다른 문화유산과 비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교를 통해 문화유산의 가치들의 상대적인 중요도를 파악 할 수 있으며, 가치가 과연 국가 등록 문화유산과 비교해 볼 때 어느 정도의 중요성을 지니고 있는지 파악이 가능함</li> <li>• 문화유산을 지정 목록에 올리는 것은 가치의 중요도에 대한 척도이므로 비교를 통해 객관적으로 가치를 평가해야 함</li> </ul>
문화유산의 중요성을 총체적으로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요성에 대한 보고서(Statement of Significance)' 에 문화유산의 총체적 가치를 종합적으로 기술해서 보존원칙을 세우는 데에 기준이 되는 자료로 활용해야 함</li> </ul>

\* 자료적(증거로서의) 가치(Evidential value)

: 특히 인류의 활동이 유형적 산물로 남아 있는 경우는 그 자체가 역사적인 흐름과 중요한 사건을 반영하고 있으므로 증거로서의 가치는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지속적인 연구의 자원이 될 수 있음

\* 역사적 가치(Historical value)

: 역사적 가치는 과거의 사람들이나 사건 등이 해당 장소에 연결되어 가시적으로나 무형적으로 남아 있는 경우 모두 이에 해당

\* 미학적, 예술적 가치(Aesthetic value)

: 사람들의 감각적인 또는 지적인 측면을 자극하는 가치로서 이는 그 형식이나 디자인 의도, 자연과의 조화 등에 의해 창출되는 가치

\* 공동체적 가치(Communal value)

: 해당 장소나 유적과 연결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연대감 등을 불러일으키는 가치

표 5 문화유산에 대한 변화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해야 할 점검사항

점검사항	
1	변화의 패턴과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가 충분히 조사·수집하였는지 파악할 것
2	문화유산에 일어나는 변화(변형)가 해당 유산의 진정성과 완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할 것
3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에 대해 고려할 것
4	변화를 되돌릴 수 있는지에 대한 가능성을 고려할 것
5	다양한 보존관리의 방법론을 모색하여 보존을 위한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것
6	결정사항이 문화유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측면이 있을 경우 그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
7	보존·관리의 실행에 따른 결과를 점검하고 평가할 것

표 6 보존원칙을 수립하기 위한 보존관리의 형태 구분

보존·관리의 형태	
1	일상적인 관리 및 점검
2	정기적인 개조 (시대적인 흐름에 맞게 개조 또는 전면 보수)
3	보수
4	과거에 대한 지식을 넓히기 위한 개입
5	복원
6	새로운 작업이나 변형
7	일반 대중의 이익과 보존을 접목시킴
8	가능한 개발

2단계인 문화유산의 가치의 총체인 중요성에 대한 평가는 <표 4>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모두 8가지 측면에서 점검하도록 하고 있다.

3단계로, 해당 문화유산에 대한 개입이나 자연적·인위적 손상에 의한 변화(변형)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점검해야 할 사항은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두 7가지 분야로 나누어 서술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4단계에서는,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보존·관리의 형태를 8가지로 나누어서 그 원칙을 제시하였다.

<표 6>에 제시한 단계별 보존원칙 수립과정은 평가된 문화유산의 가치를 고려하여 매우 체계적인 과정을 거쳐 보존원칙을 세우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으며, 보존과 활용이라는 두 문제 사이에서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사고의 틀을 제시하고 있다. 2단계의 가치를 평가하는 부분에서는 다양한 가치들 간에 일어날 수 있는 충돌에 대해, 가치의 여러 측면들을 최대한 고려하여, 일방적으로 어느 한 가지의 가치를 희생하기 보다는, 상충하는 가치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또한 3단계에서는 2단계에서 수행한 가치에 대한 평가들을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관점에서 외부의 요인들을 포함시켜, 다시 한번 점검하여, 신중하고, 합리적이며, 다양한 가치들을 최대한 보존할 수 있는 판단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결국 보존·관리의 원칙은 이러한 체계적인 사유과정과 단계를 거쳐 수립하는 것임을 간접적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이를 실천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참고하여 국내에서도 가치에 바탕을 둔 보존원칙의 수립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방법론을 정리하여 제시해 보면, 첫 번째 단계로 먼저, 개별 문화유산에 대한 가치를 나열하고, 이들의 가치들을 상세하고 포괄적으로 서술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가치를 종합적이고 깊이 있게 평가하는 과정에서는 눈에 보이는 물질적이고 가시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무형적인 요소나 정신적인 부분을 모두 고려하여, 자세히 기술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한 가치에 대한 서술은, 보존 원칙을 도출하기까지의 전 과정과 보존처리 후 사후 관리에 있어서도 늘 참고해야 할 문화유산의 아이덴티티와 같은 문서이다. 그러므로 이를 서술 할 때 역사적 사실을 찾아내기 위한 학술적 연구와 함께 사회학적 측면에서 해당 문화유산과



관련된 각종 정보나 이해집단에 대한 이해, 해당 문화유산의 보존 이력도 함께 조사하여야 한다. 이러한 종합적인 연구와 조사를 통해 파악된 문화유산의 다양한 가치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총체적인 중요성을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는 동시대나 유사한 유형의 문화유산과의 비교를 통해 상대적인 중요성을 함께 평가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음 단계에서는 해당 문화유산의 가치를 감소시키거나 부정적으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다양한 위협요소나 영향요인을 파악하여야 한다. 다양한 가치들 간에 서로 충돌하는 요소들이라든지, 개발과 같은 주변 환경에 대한 요소나 해당 문화유산의 보존 상태와 환경, 보존관리를 위한 지속적인 재원의 확보여부 등의 측면에서 다각도로 검토하여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서는 파악된 가치와 중요성, 그리고 해당 문화유산의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을 토대로, 가장 바람직하고 현실적인 보존·관리 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앞서 파악한 문화유산의 다양한 가치들이 최대한 보존될 수 있도록 서로 상충하는 가치들 간에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여, 가능한 한 어떤 가치도 희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적인 절차와 실질적인 방법론을 참고하여, 우리도 모든 문화유산에 일괄적으로 적용할 절대적인 원칙을 제시하려는 시도에서 벗어나, 각 사안별로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과 기관이 철학적 기반 위에 논리적이고 종합적인 관점에서 보존원칙을 세울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이러한 절차를 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보존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지침서가 있어야 하고, 이들을 지속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문화유산을 종합적으로 보존하고 관리하는 책임을 맡고 있는 국가기관인 문화재청은 문화유산을 관리하고 보존하는 개인이나 단체, 그리고 지방정부의 담당자들이 스스로 합리적인 보존원칙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지침서를 작성·배포하며, 이들을 지속적으로 교육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 향후의 과제

문화유산이 지니고 있는 가치는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활용하고, 전승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이자 대상이다. 즉, 문화유산이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를 보존하고 활용하고 전승해야 하는 정당성을 주장할 수 있고, 그러한 행위를 하기 위한 내용물도 바로 문화유산이 지닌 가치의 다양한 측면들이기도 하다. 지금까지 우리가 '왜 보존해야 하는가'에 대한 대답으로 흔히 이야기 해오던 민족의 얼과 정신, 역사적 증거는 문화유산의 가치에 해당한다. 그리고 그 가치는 역사적, 미학적, 학술적, 경관적 가치 등 문화재 보호법에 등장하는 가치들 말고도, 감정적 가치, 사회 구성원들에게 개인별로 또는 집단적으로 연대감을 형성하도록 하는 가치, 금전적으로 환산할 수 없으나 어떤 형태 등 한 사회나 문화 안에 있는 구성원들에게 교육적 혜택이나 정신적 안정을 사회경제적 가치, 종교적 감흥을 일으키고 믿음이나 교리에 대한 이해를 강화시키는 가치, 희귀성으로 인한 가치 등, 구체적으로 명명할 수 없는 가치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다. 또 그러한 다양한 가치들을 이해하고 파악해야만 이들을 손상시키지 않고 보존할 수 있으며, 가치를 최대한 보존하는 방향으로 보존원칙을 수립할 수 있다.

현재까지 가치와 진정성,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보존원칙은 서구적 관점에서 발전하여 왔기 때문에, 한국의 문화유산의 특성이나 현실적 상황과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그러므로 가치를 평가하는 단계에서부터 비판적이고 창조적인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가치에 대한 한국적 논의를 시작하는 차원에서 가치에 대한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루었다.

본 논문에서는 현재까지 국내에서는 논의되지 못한 '가치'에 대한 시론적인 연구로서, 깊이 있게 가치의 한 측면에 대해서 논하기 보다는, 포괄적으로 가치에 근거를 둔 보존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 절차와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해 종합적으로 논하였다. 그리고 그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문화유산이 지닌 다양한 가치의 개념적 측면과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 그리고 보존관리의 원칙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종합적인 가치 평가내용을 어떻게 적용해 나갈 수 있는지 살펴보았다.



이번 연구는 가치에 대한 논의와 연구가 국내에서는 거의 전무한 상태에서 초보적인 단계로 시도해 본 것으로서, 앞으로 더욱 다양한 각도에서 깊이 있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먼저 가치의 다양한 측면들에 대해 한국의 문화유산을 예로 들어 보다 깊이 있고 상세하게 서술하며, 이를 실제로 문화유산에 적용해 보는 과정이 필요하다. 물론 세계문화유산의 등재 신청을 위해 특정 문화유산에 대해 보편적 가치에 대한 평가와 서술은 이미 해왔지만 그 외의 문화유산에 대해서는 가치평가를 종합적으로 하여 이를 바탕으로 보존원칙을 수립하는 경우가 드물

었다. 그러므로 지정문화재나 비지정 문화재에 대한 종합적 또는 개별적 보존계획 수립 과정에 반드시 가치에 대한 평가단계를 포함시키도록 하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진정성의 개념과 다양한 측면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서, 서구 중심적 개념을 맹목적으로 받아들이기 보다는, 한국 문화유산에 적합한 진정성 개념을 재정립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가치에 중점을 둔 문화유산의 보존원칙 수립을 위해서 거쳐야 하는 단계들을 다양하게 제시하고, 각 단계들에서 고려하고 점검해야 하는 사항들에 대한 지침서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 참고 문헌

---

- Avrami, E et al (eds), 2000, *Values and heritage conservation*, LA : The Getty Conservation Institute
- Cabinet Office, 2002, *Creating public value*, London : Cabinet Office
- Clark, K, 2006, *Capturing the public value of heritage : the proceedings of the London conference, January 2006*, London : English Heritage, pp.25~26.
- de la Torre, M (ed), 2002, *Assessing the values of cultural heritage*, LA : The Getty Conservation Institute
- English Heritage, 2008, *Conservation principles, policies and guidance for the sustainable management of the historic environment*, London : English Heritage
- Grenville, J, 1993, 'Research strategies and priorities: an afterthought : the Chester Rows' in J Wood(ed) *Buildings archaeology : applications in practice*, pp.97~107. Exeter: The Short Run Press
- Munoz-Vinas, S, 2009, 'Beyond authenticity' in L Hermans & T Fiske (eds) *Art conservation and authenticities*, London : Archetype Publications
- ICOMOS, 1964, *International Charter for the Conservation and Restoration of Monuments and Sites (Venice Charter)*, Paris : Unesco
- ICOMOS-Australia, 1999, *The Australian ICOMOS Charter for the Conservation of Places of Cultural Significance(Burra Charter)*, 1979년 제정(1981·1988·1999년 개정)
- Larsen, K (ed), 1995, *Nara conference on authenticity*, Paris : Unesco
- Lee, Sujeong, 2007, *Conservation of religious buildings in use : comparative research into some philosophical, legal, management aspects of the conservation of English churches and Korean Buddhist temples*, PhD thesis in Conservation Studies, University of York
- Lipe, W, 1984, 'Value and meaning in cultural resources' in C Henry(ed) *Approaches to the archaeological heritage : a comparative study of world cultural resource management systems*, pp.1~11. Cambridge :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ason, R (ed), 1999, *Economics and heritage conservation*, LA : The Getty Conservation Institute
- Miele, C, 2005, 'Morris and conservation' in (eds) *From William Morris : building conservation and the arts and crafts cult of authenticity, 1877~1939*, pp.31~65. New Haven & London : Yale University Press
- Riegl, A, 1903, 'The modern cult of monuments : its character and its origin', translated by K Forster and D Ghirardo(1982) in *Oppositions* 25, pp.21~51.
- SPAB, 1877, *Manifesto*, London : SPAB



MUNHWAJAE Korean Journal of Cultural Heritage Studies Vol. 44, No. 4, December 2011, pp.154~171  
Copyright ©2011,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 Preliminary Study on Defining and Assessing Heritage Values for Establishing Conservation Principles

Lee, Su Jeong

The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Received : 2011. 09. 30 · Revised : 2011. 10. 29 · Accepted : 2011. 11. 10

## ABSTRACT

Assessing values in establishing conservation principles has been at the heart of discussions for the last twenty years since conservation has been recognised as a social process to include various kinds of stakeholders for making a rational decision rather than a single scientific activity by a small group of experts. Such perception makes values attributed to cultural heritage important in deciding the reason why, the way how to, and the thing what to conserve making value assessment become crucial theme to understand and developing value-based conservation process. However heritage values, the way of assessing them, and establishing value-based conservation principles have been less studied in Korea.

This thesis aims to initiate studies of heritage values and encourage discussion for setting out value-based conservation principles. It has three main chapters: 1. to analytically review previous studies on value assessment to re-delineate various kinds of values which can be attributed to Korean cultural heritage; 2. to examine affecting factors in assessing values and significance, which are authenticity and historical and cultural dimension of value assessment; 3. to develop a process to establish value-based conservation principles.

This study left several areas to be developed in future studies: 1. deeper understanding of various kinds of values from local perspective taking actual cases; 2. addressing problems in compromising conflicting values and providing solution to conserve all attributed values withing devaluing certain aspects of values; 3. providing guidance for practicing value - based decision - making process and setting out regular training opportunities for heritage - related professionals.

**Key Words** Value, Authenticity, Conservation Principle, Decision - Making, Heritage Policy